

동남아해운

인천항 터미널 변경

동남아해운(회장 양길용)은 일부 노선의 인천항 터미널을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로 변경하는 동시에 8월28일자로 인천지점 사무실을 ICT 내로 이전한다.

금년 7월 문을 연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은 인천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갑문을 벗어난 부두로 외항(남항) 시대 및 인천항 컨테이너 물류의 다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해운은 일부 항로(NKI, MSS)의 인천항 터미널을 기존 (주)한진터미널에서 ICT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7월말 기항을 시작했다.

2003년 인천항 기항 선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처리했던 동남아해운은 이번 터미널 변경으로 수도권 화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사의 3개 기간항로(NKI, MSS, IBX)가 인천에 직기항 중이며, 동노선을 통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으로 주3항차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해운은 작년 10월부터 인천-천진 간 주 1항차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항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전 사무실: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26-1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층

이전 일시: 2004년 8월 28일(土) 15:00시

전화 번호: 885국은 변동없음,
032)885-7701~5

888국은 변동됨,

032)886-4613(代)으로

F A X 번호: 032)886-4098

동영해운

한-일항로 투입선박 대체

동영해운(대표 서명천)은 현재 일본 MAIN PORT에 투입중인 'SKY BRIGHT' 를 오는 10일 출항부터 'CARINA STAR' 호로 대체 투입한다.

일본의 주요기항지는 TOKYO, YOKOHAMA, NAGOYA, SHIMIZU, WAKAYAMA이다.

동사는 또 중국 대련PORT에 투입중인 'CARINA STAR' 호가 한-일항로로 배선됨에 따라 9월11일 출항부터 이 항로에 'LUNA STAR' 를 대체 투입키로 했다.

SK해운

올 상반기 영업이익 18% 증가

SK해운(사장 이정화)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8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4% 늘었다. 매출액은 782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6998억원에 비해 11.7% 증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경상이익은 외환환산이익이 400억원에 달해 경상이익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SK해운은 지난해 VLCC 3척과 석유제품 운반선 2척을 인도받아 VLCC는 총 12척과 석유제품운반선 총 8척을 운항하고 있다.

안진어운 . . .

평택컨테이너부두(주) 현판식

한진해운(대표 최원표)은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는 평택컨테이너터미널 현판식을 19일 터미널 사무실에서 갖고 본격적인 터미널 업무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한진해운은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운영회사로 선정된 후 7월에는 법인을 신설 대표이사로 한진해운 최건식상무(신규사업팀장)를 선임 및 직원 6명을 채용하였고 8월 초 한진그룹 계열 편입 및 업무 준비를 해왔다

총 100억원 가량이 투입(자본금)돼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동부두 5/6번 선석은 19만2000평방미터(약 5만8000평 규모) 면적으로 3만t급 선박이 동시에 2대 접안 할 수 있다.

한진해운의 터미널 입차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터미널 완공 운영 개시는 11월초 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진해운 김영민 부사장, 최건식 평택컨테이너터미널 대표 및 손학규 경기도지사, 송명호 평택시장, 우제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정홍 평택해양수산청장, 양병관 경기평택항



만공사 사장 및 주주 등이 참석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진해운은 지난 4월 한진해운 컨소시엄을 구성 평택항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된바 있으며 현재 한진그룹은 37%(한진해운 25%)의 출자비율을 갖고 있다.

한진해운 컨소시엄에는 (주)한진, (주)장금상선, (주)선광, KCTC, 시노트란스, 경기도청, 평택시, Dole Korea 등 7개 기업 및 지방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상선 . . .

컨테이너선 3척 신규발주

현대상선(대표 노정익)이 컨테이너선 3척을 새로 발주하는 등 선박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에 4700TEU 컨테이너선 3척을 발주하는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8월26일 밝혔다.

이번에 발주하는 선박은 길이 294.1미터 폭 32.2미터 깊이 21.8미터 평균 시속 25.2노트(약 47km)로,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한 번에 4700개 까지 실을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들 3척의 선박건조 가격은 총 2억달러이며, 2007년 4월~9월 사이에 인도받아 '아시아-북미 동안' 간 항로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항로는 아시아의 중국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거쳐 북미동안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어 유망항로로 꼽히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말부터 신규선박 발주와 중고선 매입 등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발주를 포함해 현재 건조중인 신조선이 컨테이너선 11척, 초대형 유조선(VLCC) 2척 등 총 13척이며, 중고선 매

입을 통해 이달에 초대형 유조선 2척을 확보했다.

현대상선측은 “현재 컨테이너선 부문을 비롯한 해운시장은 물동량 증가에 비해 선박량이 부족할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 경영도 안정되고, 지금이 투자적기인 만큼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선박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약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 상반기 매출 2조4481억원, 영업이익 260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0%, 174% 증가하는 등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고, 지난 23일에는 채권단과 맺었던 경영정상화 약정을 조기졸업하는 등 그동안의 어려움을 완전히 떨쳐내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흥아해운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84억6,200만원

흥아해운(회장 이윤재)은 올 상반기 매출액 2565억8300만원, 영업이익 57억9200만원, 당기순이익 84억6200만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9.4%, 88.9%, 220.7% 각각 증가한 수치다.

흥아해운은 2·4분기 매출액 1330억5100만원, 영업이익 47억6900만원, 당기순이익 48억18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0.5%, 52.7% 늘어났으나 당기순이익은 38.8% 감소했다.

한국선급

대대적인 조직개편 단행

한국선급(회장 이갑숙)은 8월20일부로 본부 15부 35팀을 24팀으로 축소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및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측면을 강조하는 한편 결재권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중점을 뒀다고 한국선급측은 설명했다.

앞서 한국선급은 지난 7월26일 새로운 조직을 담당할 직책자를 인선했다. 이번 직책자 인선의 특징은 기존 회장의 일방적 결정에서 탈피, 내부 공모를 통해 추천을 받은 후 경영층의 다면평가를 거쳐 회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직원들이 팀 리더를 선발하는 데 내부공모와 다면평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직원들간 융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신경영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으로 성과 및 역량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평가제 구축 및 인사제도 개선 작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국선급측은 밝혔다.

한국선급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경영혁신과 인사혁신을 통한 변화는 개별 조직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신 조직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추진중인 경영혁신 프로젝트를 중단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요원한 희망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입 직책자 명단

품질감사팀 팀장 이영선 / 기획홍보팀 팀장 조남

수 / 인재개발팀 팀장 조원유

총무팀 팀장 정광조 / 회계재무팀 팀장 이청로 / 정보기술센터 팀장 김현권 / 감사지원팀 팀장 정영준 / 등록선정보팀 팀장 최종은 / 정부대행업무팀 팀장 권용석 / 협약업무팀 팀장 임종식 / 의장업무팀 팀장 김만응 / 기술연구소 팀장 전영기 / 선체기술팀 팀장 양홍중 / 기관기술팀 팀장 정훈경 / 시스템자동화팀 팀장 전중호 / 선급규칙팀 팀장 김충희 / 특수규격팀 팀장 신찬호 / 고객지원팀 팀장 김찬중 / 특수업무팀 팀장 김종신 / ISM/ISPS인증팀 팀장 나중신 / 시스템인증팀 팀장 조순호 / 제품인증팀 팀장 조순호(겸무) / 연수소 팀장 강영수 / 기본기술팀 팀장 장내찬

KP&I Club . . .

제3기 P&I School 개설

KP&I Club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9월8일-11월3일 2개월동안 제3기 P&I School을 개설한다.

KP&I Club은 해운회사 보험담당 실무자의 Claim 처리 절차 및 관련 법령, 해상보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아래 P&I School를 개최할 예정이다. P&I School은 이 기간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KP&I Club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해운회사 보험담당자이며, 교육내용은 해상보험 이론 기초 보험시장구조, Loss Prevention 선박구조 해상근무, 충돌 및 유류오염사고, 접촉사고(FFO), 화물사고, 인명사고 등과 관련된 Claim 처리절차 및 관계법령, 관련보험의 처리, Case Study 중심의 알기 쉬운 해사판례 해설 등이다.

한국해운조합 . . .

(주)서경 박홍진사장 11대 회장 취임

한국해운조합은 8월2일 개최한 제1회 임시총회에서 (주)서경 대표이사 박홍진을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조합은 제17대 대의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직접 비밀선거를 실시하여 (주)서경 대표이사 박홍진을 한국해운조합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박홍진 제11대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07년 8월15일까지이다.

이번에 선출된 박홍진 회장은 73년 단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부경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95년 서경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현재 거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으며, 85년부터 현재까지 해운조합 대의원(11대-16대)과 제10대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임기가 2004.8.16-2007.8.15까지인 제9대 ▲부회장 3명(여객선 이호영, 화물선 김시전, 유조선 박송식)과 제15대 ▲이사 6명(이혁영, 이종석, 하기천, 장성호, 김성도, 박기우) 및 임기가 2004.8.2-2005.3.15까지인 ▲감사 2명(이명식, 이용섭)을 선출하였다.

박홍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바다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연안해운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조합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임기동안 연안해운업계와 조합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연안해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연안해운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